지난 30일 완주군이 전북도청에서 송하진 전북도지사, 박성일 완주군수, 김연수 엘에스엠트론(주)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완주, 투자의 메카로 도약

엘에스엠트론, 완주군에 750억 투자협약 체결

80여명의 일자리 창출 · 품질성능 향상 목표

엘에스엠트론(주)이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에 750억원 규모를 투자한다.

지난 30일 완주군은 전북도청에서 송하진 전북도지사, 박성일 완주군수, 김연수 엘에스엠트론(주)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서 엘에스엠트론(주)은 신규로 조성되는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에 750억원 규모를 추가 투자협약하기로 했다.

오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750억원 규모의 입지 및 설비 투자를 통해 약 8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또한, 트랙터 생산 공장 증설과 주행시험장을 조성해 생산량 및 품질 성능 향상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엘에스엠트론은 지난 2005년 군포공장을 완주공장으로 이전한 이후 제2공장 신축 등 지속적인 대규모 투자를 해왔다.

완주를 기반으로 사업규모를 확장하고 있으며, 트랙터 분야의 국내 최대기업, 글로벌 일류기업인 엘에스엠트론(주)이 완주군뿐만 아니라 전라북도를 경제를 이끌어갈 핵심기업으로써 새롭게 변모하고 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엘에스엠트론(주)의 완주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적극 환영한다"며 "대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는 중소기업들의 연쇄투자를 이끌어내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지역경제 성장의 핵심이다"고 말했다.

한편,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는 64만평 규모의 산업시설지구와 지원시설(미니복합타운)로 오는 2021년까지 조성될 예정이며, 지난 7월25일 산업시설용지 55필지를 우선분양공고 하고, 입주기업을 유치하고 있다. /완주=이중복 기자

우수 아이디어로 5G시대 선도한다

전북도, 정보통신 연찬회 개최… 전문가 특강 · 정보 공유 기회 제공

전북도 정보통신 담당 공무원들이 5G 시대 개막 등 급변하는 정보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통신 연찬회를 갖고 신기술 및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2019 전북도 정보통신 연찬회'는 도와 14개 시·군 정보통신 담당 공무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장수군 천천면 나봄리조트에서 열렸다.

정보통신 연찬회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을 비롯해 정보통신 관련 전문가를 초청, 정보통신 시책 및 신기술 발전 동향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도와 시·군 간의 상호 이해 및 원활한 정책 추진을 위해 매년 시·군을 순회하며 개최해 왔다.

올해는 5G 시대 개막을 맞아 관련 분야의 전문가 특강을 실시, 정부의 5G+ 전략에 따른 전북도 대응산업을 발굴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했다.

앞서 열린 자치단체 정보통신 공무원 '정보통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는 익산시의 '악취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과제가 최우수상을, 장수군의 '미래농업의 가치, 데이터에서 답을 찾다' 과제가 우수상을, 고창군의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 사례 및 발전방향' 과제가 장려상을 차지했다.

행사장 밖에서는 우수 소프트웨어 및 정보통신제품 전시회가 열려 참가자들이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흐름을 체험하고, 도민 생활과 밀접한 정보통신 추진과제를 발굴하는 기회가 마련됐다.

박현숙 정보화총괄과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은 정보통신 담당 공무원에게서 나온다"면서 "연찬회를 통해 정보통신 담당 공무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전북의 핵심산업과 연계한 관련산업을 새롭게 모색하는 전북도의 정보통신 경쟁력이 한층 더 강화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익산시, 한국쌀전업농 전북회원대회 성료

미래농정 위한 의견 공유 · 공연 · 장기자랑 등

익산시는 지난 29일부터 30일까지 익산실내체육관과 유스호스텔에서 제7회 한국쌀전업농 전북회원대회가 전북도내 쌀전업농 회원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행사에 앞서 29일 유스호스텔에서는 '전라북도 미래농정 방향제시'라는 주제로 전라북도 최재용 농축수산식품국장의 특강이 진행됐다.

평소 전북 농업에 관심이 많은 쌀전업농 회원 및 시민들이 참석하여 전북 미래농정을 위한 여러 의견을 공유했다. 30일에는 익산실내체육관에서 식전행사인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본 행사인 개회식과 시·군 노래자랑 및 장기자랑이 열렸다.

개회식에는 이원택 전북도 정무부지사, 박철웅 익산시 부시장, 조배숙 국회의원, 이춘석 국회의원,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과 조규대 익산시의회 의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특히 이날 한국쌀전업농 발전을 위해 노력한 한국쌀전업농 익산시연합회 이성희 회장 외 21명에게 표창장 및 감사패가 수여됐다.

2부 행사에서는 이번 행사의 주인공인 각 시·군 회원들의 노래자랑과 장기자랑이 진행되어 회원들이 스트레스도 풀고 서로 단합하고 화합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제7회 한국쌀전업농 전북회원대회 개최를 축하드리고 이번 행사를 통하여 한국쌀전업농이 한층 더 도약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농사일로 바쁜 나날을 보냈던 회원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추석 연휴 비상진료 대책상황실 구축

전북도, 24시간 응급실 · 당직의료기관 · 휴일지킴이 약국 운영

전북도는 추석 명절 연휴 기간(9. 12~15, 4일간)에 당직의료기관과 휴일지킴이약국 지정 운영 및 도, 시군 비상진료 대책상황실을 운영하여 응급환자 진료에 불편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를 구축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내 응급의료기관(20개소)은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며, 추석 연휴기간 중에는 환자가 쉽게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일자별로 비상진료기관(468개소)을 지정하여 진료하고, 휴일지킴이 약국(230개소)도 의료기관과 연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과 진료 안내 등이 필요할 때는 119 구급상황관리센터(국번없이 119),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시·군 보건소에 문의하면 당직의료기관 및 약국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온라인상에서는 9월 11일 오후 6시부터는 응급의료정보센터 홈페이지(www.e-gen.or.kr) 및 '응급의료 정보제공' 앱(App)을 통해 가장 가까운 위치에 문을 연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검색할 수 있다.

/김진성 기자

전북도, 학교 우유급식 시범사업 확대 추진

전북도는 9월 1일부터 109개 초등학교 1학년 2250명에 무상우유급식 및 22개 중고등학교 전 학생 2300명에 발효유·치즈급식시범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2018년 학교우유급식 시범사업은 72개 초등학교 1학년 1185명에 무상우유급식을 지원했으나 올해는 2250명으로 사업량 확대 및 22개교 중고등학교 2300명에 발효유·치즈급식 시범사업을 추가로 실시한다.

대상학교 선정방법은 시군과 교육지원청이 협의해 도서지역, 시군 재정자립도, 학교우유급식 참여율 등을 고려하여 선정했으며, 지원기간은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초등학교 1학년 무상우유급식은 주 5회(80일 내외), 중고등학교 발효유·치즈급식은 주 3회(50일 내외)에 걸쳐 지원한다.

또한, 연초부터 초중고등학교의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학생 등 46천명을 대상으로 50억7700만원을 지원하여 학교우유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이번 학교우유급식 시범사업을 통해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우유 음용습관을 조기에 형성해 필수 영양소를 고루 섭취함으로 신체발달과 건강한 학교생활을 기대하며, 우유는 성장기 학생들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모두에게 좋은 식품이므로 도민들도 우유 음용습관을 길러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더불어 우유소비 촉진으로 낙농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전북도 통합방위회의 개최… 35사단 지역안보현장 방문 · 작전태세 점검

전북도 통합방위협의회(의장 송하진 도지사)는 지난 30일 오후 2시 제35보병사단에서 '2019년 제3차 전라북도통합방위 회의'를 갖고 민·관·군·경이 다 함께 지역통합방위태세 확립을 다짐했다.

이번 통합방위회의는 전라북도의 작전을 총괄하는 육군 제35보병사단에서 지역안보태세를 점검하고, 민·관·군·경 협조체제로 통합방위 태세를 확고히 다지는 자리로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통합방위 작전태세 추진상황에 대한 제35보병사단의 보고, 해안경계작전부대(군산·부안·고창)와 화상통화로 해안경계태세에 여념이 없는 대대장들에게 감사와 노고를 치하한데 이어 제35보병사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신무기(차륜형 장갑차, 대테러장비 등)를 관람하면서 향토방위에 여념이 없는 장병들을 격려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항상 지역안보 태세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통합방위 요소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와 정보공유를 통해 통합방위태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송 지사는 특히, 해안부대의 땀과 노력이 전북 안전으로 연결된다는 생각으로 해안경계작전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 PDF 지면보기 서비스는 www.jjmaeil.com에서